

'금주 5년차' 김신영 "주사가 최악...설현 입간판과 싸워"

등록 2026.05.01 00:00:00



[서울=뉴시스] 30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코미디언 김신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사진=KBS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코미디언 김신영이 술에 취해 입간판과 싸웠던 경험을 떠올렸다.

30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김신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신영은 술과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요요가 왔지만 술은 끊었다. 5년 넘게 안 마시고 있다"며 "차라리 행복을 위해 맛있는 거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주 이유에 대해선 "술주정이 너무 심하다. 송 선배(송은이)에게 '술 잘못 배웠다. 어른한테 배워야 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현이랑 한 번 싸웠다"며 일화를 꺼냈다.

김신영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현에게 고함이 오간 몇 장면이 떠오르고, 싸운 기억이 나더라. 내가 술 먹고 설현을 불러서 그런 줄 알고 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현이 '언니 왜? 나 안 나갔는데' 그러더라. 알고 보니 제가 설현 입간판을 보고 '너 이 XX, 언니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나 너한테 많이 서운해. 손 내려 이 XX야' 이런 거다"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